

“KTX 없는 광주역 차라리 폐쇄를”

새마을·무궁화호 고작 하루 왕복 16편 운행·이용객 '반토막'
북구·주민들 "사통팔달 도로 확보...구도심 활력 공간 조성"

93년 역사의 광주역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매년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KTX 진입이 무산되고 일반열차만 겨우 16편 왕복운행 때 광주역의 효용성 자체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광주역이 구도심의 남-북간 도시공간을 단절하고, 차량 흐름을 가로막아 도심 교통 정체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역의 폐쇄 등 기능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광주역 폐쇄로 역 기능을 없애는 대신 우선적으로 상권 확대 유지하고, 북구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시

설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 폐쇄에 따라 새롭게 생긴 대형 부지는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통팔달'의 소통도로를 확보해 구도심의 새로운 활력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역 활성화(폐쇄 여부) 방안 등을 담은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했다. 시는 KTX미정착에 따른 광주역 폐쇄 여부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역이 위치한 북구지역에서도 KTX 미정착 확정 이후 광주역 폐쇄를 주장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광주역을 폐쇄하고 신규도로를 만든다면 ▲단절된 남-북 도시공간 연결에 따른 북-동구와 서구의 지역 내 균형발전 ▲상습정체 해소, 평균 교통 이동속도 향상, 대중교통 이용시간 단축 등 교통환경 개선에 따른 사회적 교통유발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광주시도 이번 용역에 앞서 지난 2012년 '광주역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광주역 폐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폐쇄론쪽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시는 "국토부의 '1도시 1거점역' 원칙에 따라 KTX의 광주역 진입이 무산된다면 도시공간을 단절시키는 부작용까지 따오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역으로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북구정도 내부적으로 광주역을 폐쇄하고

공동화 방지를 위한 개발계획을 고민 중이다. 실제 광주역 주변 상권은 현재 일부 KTX가 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상인이 떠난 건물 곳곳에서 '임대' 문구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으며, 수개월째 매물로 내놓은 상가도 여러 곳이다. 광주역 인근 주민과 상인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광주역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주민 김지훈(43·북구 중흥동)씨는 "광주역을 없애고 역 앞 오거리와 전남대 후문 방향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만든다면 상습 정체도 해소되고, 동·서구와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역은 1922년 7월 1일 동구 대인동 소재 보통역으로 첫 영업을 시작했으며, 1968년 7월 현 북구 중흥동으로 이전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춘절’ 요우커 몰려 온다는데…

<春節·설> <중국인 관광객>

‘지갑’ 열게할 인프라가 없다

광주·전남 지자체 유통업계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시급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春節·설) 연휴(18~24일)를 앞두고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포함한 중화권 관광객들의 광주·전남 지역 방문이 예상되지만 정착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전남도 등 지자체와 유통업계, 유통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경절 연휴 등의 추세를 볼 때 최소 2000명의 요우커가 광주·전남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주시, 전남도 등 지자체와 유통업계, 유통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경절 연휴 등의 추세를 볼 때 최소 2000명의 요우커가 광주·전남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주 지역 주요 백화점과 전남 지역 쇼핑센터의 움직임은 더 한가하다. 서울·부산 지역 유통업계가 춘절을 앞두고 다양한 판촉행사로 요우커 모시기에 나선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지역 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중국 관광객의 소비 형태에 맞춰 화장품과 토속품 등 매장 배치를 조정하고, 와인 증정행사를 준비했지만 신통치 않았다"며 "현재 매출 부진속에 우리 설 명절 행기도 버거운 상태"라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과 쇼핑 인프라 구축 등 광주·전남만의 전략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광주·전남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나 부산 등을 가기 위해 거처가는 '정거장'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요우커를 끌어모을 수 있는 '체류형'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좋은 수준은 아니지만 백화점이나 아웃렛 등 갖춰진 쇼핑 인프라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광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둘러보는 곳은 무등산과 정음성 생가, 5·18묘지, 아시아문화전당 등으로 한정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화권 관광객들은 광주에서 '구경'만 하고 쇼핑은 서울이나 부산에서 하고 있다.

광주전남관광진흥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요우커 모시기에 나서기로 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모습도 태평하기만하다. 지난해 중국 국경절에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열고, 광주·전남지역 홍보 안내책자와 주요 관광지 할인쿠폰을 나눠줬던 상황과는 다른 모습이다. 심지어는 중국 춘절이 코 앞인데도 광주나 무안을 통해 입국하는 요우커의 수조차 제대로 추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부산에서는 신세계나 롯데 같은 백화점에서 2시간 정도 쇼핑하는 일정이 들어가 있지만, 광주의 경우 쇼핑 시간이 따로 없는 편이다. 쇼핑 시간을 잡아도 물건을 별로 사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종찬 광주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중국인 유학생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그들의 흥미를 끌어야 인입소문이 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결국 지갑을 연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설 선물 택배 '배달 전쟁' 설(19일)을 앞둔 10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광주우편집중국에서 임직원들이 설 선물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우편집국은 평소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물량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새정치 “문화전당특별법 24일이 마지노선”

“2월국회 처리 모든 것 걸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와 국가재정지원을 담보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 처리를 위해서 24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여당과 협조를 요구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박혜자 의원은 10일 광주일보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9일과 24일을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놨다"며 "하지만 9일이 불 건넌 건 만큼 이제 24일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 박 의원은 또 "오늘 우윤근 원내대표와 정책위 관계자, 실훈 교문위원장, 야당 간사인 김태연 의원 등과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물론 김 의원의 여당 측과 물밑 접촉을 하며 아특별법

제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또 이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만나 아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문 대표의 대표 경선 공약인 만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문 대표가 이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문 대표는 이르면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강력한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설 선물세트 과대 포장 ▶6면



컬처 & 피플 ... 황현산 ▶17면

광신대학교

학부 추가 신학과, 국제한국어교육학과, 음악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유아교육과, 실용음악학과

원서접수 ▶ 2.16 ~ 22(일) 062-605-1114

대학원 추가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원서접수 ▶ 2.9 ~ 23(일) 062-605-1115

도장·도금 공장 매각 및 임대

공장부지 18,549평 · 건물 3,000평

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예리리 1241-74

현황 아연도금 연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1메가)

토지면적 61,321㎡(18,549평)

공장면적 10,000㎡(3,025평) (아연도금 공장 1,000평, 도장공장 2,000평)

물류면적 51,674㎡(15,631평)

보유설비 산처리/도금 설비, 환경설비, 표면처리 설비, 크레인 설비, 전기 950kw

매각 또는 임대 협의 가능

담당자 010-6318-9611